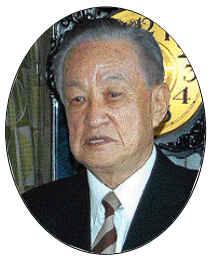
중국 동북지방과 한민족의 문화권文化圈 (하)



權 兌 遠
충남대 명예교수

본래 부여어인 예맥어계에 속하여 고구려와 백제로 계승되며 널리 사용된 우리말의 고대 기층어로서 성읍城邑을 뜻하는 말이 지명에 쓰인 바 ‘홀忽’이라는 칭이 있다. 고구려 최초의 도읍지인 혼강 유역의 환인桓仁 지방을 고구려인은 졸본卒本 또는 홀본忽本이라 하여 광개토왕廣開土王의 비문에 새기고 있다. 또한 한성백제漢城百濟의 첫 도읍지인 위례성慰禮城에 위례홀慰禮忽이 있고 비류沸流의 도읍지인 인천의 옛지명 미추홀彌鄒忽이 있다. 이같은 ‘홀忽’칭에 대하여 ‘삼국지三國志’의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서는 “구루溝婁 : 책구루책 溝婁라 함은 고구려에서 성城을 이른다”하였다. 알타이어군 중 퉁구스어계에서 파생한 만주어에서 개음절開音節인 호로horo가 성城을 뜻하고, 이것이 폐음절閉音節로 가면 홀hol로 변하고 다시 콜kol로 바뀌면서 한동안 홀과 콜이 공존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 말엽 당이 침공으로 점유한 압록강 이북의 요동지방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하였는데 현재의 중국 동북지방인 만주에서 당시 당에 항복하지 않은 성과 항복한 성 이름에 홀忽칭이 있는 지명을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 4에서 찾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신성주新城州 : 구차홀仇次忽(요녕성遼寧城 무순시撫順市 북관산성北關山城 추정)

요동성주遼東城州 : 오열홀烏列忽(요녕성 요양시遼陽市 추정)

안시성安市城 : 안촌홀安寸忽(요녕성 안산시鞍山市 해성현海城縣 추정)

감물주성甘勿主城 : 감물이홀甘勿伊忽

설부루성屑夫婁城 : 초리파리홀肖利巴利忽

혈성穴城 : 갑홀甲忽

은성銀城 : 절홀折忽(요녕성 안산시 절목성折木城 추정)

사성似城 : 사홀史忽

이밖에도 홀칭으로 이름한 당시의 성주城州가 더 있다 하고 있다. 또 ‘요사遼史’의 태조기太祖紀에 “발해국을 바꾸어 동단東丹으로 하고…… 홀한성忽汗城은 지금의 흑룡강성 영안현寧安縣 서남 60리의 동경성東京城임에 이설異說이 없다”고 하고 있고, 또 ‘신당서新唐書’ 지리지地理志를 인용한 가탐賈耽의 ‘도리기道理記’에 “홀한하忽汗河는 현재의 경박호境泊湖와 더불어 모란강牡丹江이며 상경上京 용천부는 경박호인 홀한하 가까이에 있는 고로 홀한하 동쪽에 있는 성을 홀한성이라 한다”고 하였다. 결국 발해가 건국한 당나라 시대 이후의 모란강 강명江名이 그 이전에는 홀한하였으며 발해가 망한 후 금金나라 때부터는 호이객瑚훅喀 또는 화라갈和羅)·포이갈布훅) 등으로 변하였는데 이는 모두 홀한하를 바탕으로 전음轉音한 데서 나온 변화라는 것이다.

‘신당서新唐書’ 발해전渤海傳에 의하면 당의 예종睿宗 선천先天(712) 연간에 발해국왕 대조영大祚榮에게 발해군왕渤海郡王의 칭호와 더불어 발해 지역의 당시 지명 홀한주忽汗州의 통치권을 인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발해가 개국한 후와, 그 이전 부여에서부터 고구려와 백제에 이르기까지 지명에 그들의 기층어인 홀忽의 칭이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같은 홀의 칭과 더불어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몽골·터어키·퉁구스 등의 사회에서 국왕 또는 최고 통치자의 칭을 성길사한成吉思汗(징키즈칸)·가한可汗 등으로 하고 있고 삼한三韓에서는 거서간居西干·마립간麻立干 등의 간干으로 하고, 관직명에 한旱과 찬飡 등, 동의同意이나 차음상으로 차이가 있는 칭이 있음을 볼 있다. 따라서 홀칭과 결합이 되는 한汗의 칭은 한旱·찬飡 등 동일한 뜻의 기층어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북방에 건국한 몽골·터어키 등 알타이어계 족단 문화의 영향에서 온 결과로 볼 것이다.

고대 국가의 형성이 부족 연맹체로 이루어졌으며, 부여국 또한 가축명이 들어간 4가加의 칭을 가진 부족장이 통치를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가加의 칭을 부여에 이어 동일 족단계인 고구려에서도 대가大加·상가相加·고추가古鄒加 등의 최상위 관직명에 쓴 것이 보인다.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세운 나라 가야加倻(伽倻)·가라加羅·가락駕洛 등에 보이는 가가가加伽駕의 칭 역시 동일계 족단의 이동을 뜻하는 칭호로 보인다. 신라는 그 이름이 사로국斯盧國에서부터 서나徐那·서야徐耶·서라徐羅 및 서라벌徐羅伐에 이어 신라新羅가 되면서 뒷이름자에 나那·야耶·라羅의 칭이 따라붙고 있다. 이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족단 또는 통치자의 칭호로 쓴 가加와 나라를 뜻하는 나那·야耶·라羅가 결합하여 가라加羅·가야加耶 따위 명칭이 나온 것으로 본다면 이같은 칭에는 동일계 언어 문화 및 집단의 이동의 증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홀칭과 대조적으로, 백제의 도읍 부여扶餘를 소부리所夫里라 한 것을 비롯하여 신라의 솟벌·서벌·서라벌 등에 벌伐과 부리夫里 등이 있으며, 이는 불(火)·불弗·부리富里·원原 등과 같이 너른 언덕의 의미로 평원平原 또는 성읍城邑의 뜻으로 사용된 말로 추정되고 있다. 최남선崔南善의 이른바 Park 문화권과 관계가 있는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은 태양의 하늘 천신天神의 숭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결국 불함산不咸山인 백두산白頭山을 비롯하여 태백산太白山 등 천산天山을 숭배하는 한민족이, 거석巨石을 통해 신앙심을 발현하고자 석총石塚·적석총積石塚 또는 제단석祭壇石을 세워 태양거석太陽巨石 문화권을 이룬 민족과 연결되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태양신 천신을 숭배하는 우리의 국조 단군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부여국夫余國의 와성王姓 해解씨에 얽힌 설화가 있다. 즉 부여의 시조는 해모수解慕漱이고 그 아들에는 해부루解夫婁가 있다. 일설에는 해부루가 단군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이같은 부여의 왕성 해씨계로는 고구려의 대무신왕大武神王의 이름이 해명解明인 것이 있는데, 이를 또는 대해주류왕大解朱留王이라고도 하여 해解자가 들어가고 있다. 고구려 4대 민중왕閔中王은 해색주解色朱이고, 5대 모본왕慕本王은 해우解憂 또는 해애루解愛婁라 하였다. 백제의 왕성은 부여夫餘에서 남하 이민한 것을 뜻하여 부여扶餘씨로 하였으나 그 지배집단이던 대성大姓 8족 가운데에 또한 해씨가 포함되어 있어 전지왕?支王 때의 내법좌평內法佐平 해수解須와 병관좌평兵官佐平 해구解仇 등이 보인다.

한편 일본의 신대神代 건국설화의 천신에 아마노오시호미노미고또天忍穗耳尊천인수이존이 있는데 그 아들을 아마쓰히꼬히꼬호노니니기노미코또天津彦彦火瓊瓊杵尊천진언언화경경저존이라 하여 천신이 하늘에 오른 후 아들 천진신天津神이 열도의 구주九州 지방 히무카꾸지후루노타께日向樓觸之峯일향루촉지봉으로 옮겨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고대사가들은 여기에서 누촉지봉樓觸之峯이 우리나라의 금관가야金官伽倻 수로왕首露王이 하강한 구지봉龜旨峰의 전음轉音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일본의 천신이 한반도에서 이주한 것을 뜻하는 것이다. 천손天孫의 하강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건국설화가 일본으로 건너가, 한반도에서 이주한 천진신天津神이 일본 재래의 토착신 국진신國津神을 정복하고 자리잡아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대륙 동북의 만주 대평원에서 발원하여 태양을 숭배하며 큰 규모의 석총 문화권을 형성한 고대 한민족은 천신의 왕국 고조선 및 부여국을 비롯하여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및 고대 일본에 이르기까지 동일계 민족에 의한 동일 문화권을 형성하여 이를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가 있다.

永嘉言行錄에 앞서 나왔어야할 영가언행록과 쌍벽을 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 編年體姓氏史

安東權氏
太師公實記

저자–權五焄
저작권자–安東權氏太師公實記編纂委員會
보급처–安東權氏宗報社
상·하2권 값 15만원
六禮이야기[48,000원] 별책사은품증정

4·6배판1630면에 집성된 시조태사공의 득성이전 김알지大輔公이래 천년과 득성이후 천년의 榮辱과 곡절이 어린 안동권씨 姓族의 大河實錄!
文獻世鑑·太師權公實記·陵洞誌·陵洞實記·陵洞千年略史 등 안동권씨 대종중에 5백년 동안 축적돼온 古文漢字 만리장편 敍事의 완벽한 국역주해 와 원문조판 병재!
원색사진판 96면, 원고지 1만여장 분량으로 책자의 수명 1백년을 내다보고 제작한 최고급 寶藏本.

安東權氏宗報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5-5번지 파크뷰타워 807호
전화 02)723-4480·732-9139